

중보기도 Intercession Prayer

- 제 4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하여
- 2021년도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 환우와 시니어 공동체를 위하여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하여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와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 사무처리회를 위하여(오늘)
- 국내/해외 선교지와 사역자의 안전을 위하여
-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아이티와 내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 한반도 평화와 정세 안정을 위하여
- 미국의 정치/경제/문화를 위하여
- 지역교회 살리기(포도나무교회-김명신 목사) 위하여
- 이번주 지역교회 중보기도: 엠마오 침례 교회 - 유용식 목사

국내/해외 선교 Home/Overseas Mission

국내 선교 지역	선교 방송 스케줄
▶ 방송 선교지원	▶ 코엠TV(채널 257): 매주일 7:25AM
▶ 노숙자 동지 선교회	▶ 라디오 한국(AM 1450): 매주일 8:30AM
▶ 아프리카 우물과기	▶ 라디오 코리아(어플다운): 매주일 7:00AM
▶ 샤론센터	
▶ 오병이어의 기적 M52	
▶ 한국선원 선교회	
▶ 이완구 장학사역	

해외 선교 지역	기독교 기관 선교
▶ 동아시아 50개 교회	▶ 미주 남침례회 SBC
▶ 독일/시리아 난민선교(JDL)	▶ 북미주 한인침례총회 CKSBCA
▶ 쿠바(정경석)	▶ 서북미 한인침례교 협의회
▶ 니카라과(혜밀턴)	▶ 한인국내선교부
▶ 도미니카 아이티(문애희/Vilcaive)	▶ 한인해외선교부
▶ 우크라이나(박철규/김경희)	▶ 남침례교 6대 신학교
▶ 잠비아(Emile)	▶ 한국침례신학대학교
▶ 말레이시아(고인섭)	▶ 밀알선교단
▶ 터키(이성숙/자슈아)	
▶ 슬로바키아	
▶ 헝가리/집시선교(박완주)	

제일 어린이 동산(Day Care)

1328 S. 84th ST., Tacoma
253) 535-9435 Director 박정희

아름다운 기도원

28814 Mountain Hwy E, Graham
253) 847-2250 Director 안광일 목사

SINCE 1975

2021년 10월 24일

WORSHIPPING CHURCH 2021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너진 세대를 연결하고, 교회와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성령공동체이다.

주일예배

장년부 제1부 한어예배	7:40AM / 분당
장년부 제2부 영어예배	9:20AM / 분당
장년부 제3부 한어(통역)예배	11:00AM / 분당
사랑부 예배 (장 애인)	11:00AM / 베툴레헴
영아부 예배	9:30, 11:00AM / O-3
유치부 예배	9:30, 11:00AM / 나사렛
유년부 예배	9:30AM / 베툴레헴 11:00AM / 나사렛
영어청년/Youth 예배	11:00AM / 안디옥
한어청년	1:30PM / N-201

수요일예배

장년부 한어예배	7:00PM / 분당
장년부 영어예배	7:00PM / 안디옥
영아부, 유치부 어와나	7:00PM / 나사렛
유년부 어와나	7:00PM / 베툴레헴

금요일모임

Youth	7:00PM / 안디옥
영어청년	7:30PM / 유스룸
한글학교	6:00PM / 각교실

새벽예배

한어부	월-토 / 6:00AM / 분당
영어부	화-토 / 6:00AM / N-202

YouTube tfbc

www.tfbc.org



CONTACT

Phone: 253.535.5803 Fax: 253.535.2240
Address: 1328 S. 84th St., Tacoma, WA 98444
Email: tfbc002@gmail.com

tfbc 타코마제일침례교회
Tacoma First Baptist Church

주일예배

Worship Service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0

1부 인도: 남궁곤 목사

3부 예배 오전 11:00/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3부 인도: 정주영 목사

- * 경배와 찬양
- 1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25장 “면류관 가지고”
- 3부: “은보다 더 귀하신 주”
“오 주여 나의 마음이”
“호흡 있는 모든 만물”
“위대하신 주”

기도

1부: 정자열프 집사
3부: 이종덕 집사

봉헌찬양

1,3부: 447장 “오 신실 하신 주”

공동체 소식

* 성경본문

빌립보서 3:1

제목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선포

정주영 목사

* 응답찬송

1부: 102장 “주 예수 보다 더”
3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 축도

* 표는 일어나 주십시오(All Rise)

이달의 말씀 Word of the month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5)

해 주세요. 캔디를 후원할 때는 포장이 뜯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후원하신 캔디를 우리교회 자녀들 뿐만 아니라 교회 주변 초등학교에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5. **트루 워십퍼스 12 찬양집회: 11/3(수) 오후 7시, 본당**
COVID-19으로 지쳐있는 성도를 위로하는 클래식 찬양집회를 본당에서 갖습니다.
6. **창립 46주년 기념예배: 11/7(주일) 8시, 11시에** 전교인 연합예배로 본당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IMB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예정입니다.
7. **하나님의 VIP 2021년 3기 개강: 11/7(주일) 오후 1시, 새가족실**
5주 과정의 하나님의 VIP를 수강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과 새가족들은 로비의 신청서나 교회 사무실에 전화로 신청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8. **생명의 삶 11월호**를 교회 사무실이나 로비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권당 \$5)
※ **생명의 삶 영어책 구입은 Frank Torres 목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9. **내년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 등록 기간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성도는 해당 기간에 신고하셔서 내년 투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2021.10.10-2022.1.8

◆ 행정사역(Administration Ministry) ◆

- ◇ **TFBC 예배 캠페인:** 교회와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다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1) 기도로 준비하기 (예배 10분 전부터)
 - 2) 헌금을 미리 준비하여 드리기
 - 3) 핸드폰은 진동(무음) 모드로 설정하기
 - 4) 예배 장소 미리 정하고 정돈하기(온라인 예배 경우)
- ◇ 주중에는 **교회 메인 게이트(M번가)를** 닫습니다. 데이케어 쪽(84번가) 게이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수요예배와 주일예배때에는 열어 놓습니다)

◆ 교우동정(Compassion) ◆

- ◇ **중보:** Clarence Turner, James Roberts, Willie Buggs, Leah An, John Zemzars, William Dungey, Kenneth Adkins, Eric Mose, Tom Bayliss, 이원덕, 백옥자, 양례집스, 신의범

■■■■ **드려진 예물** Last week Offering

공동체 소식

Announcement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서 사역자를 만나 교회 등록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WORSHIPPING CHURCH 2021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TFBC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워싱턴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거나 교회를 방문할 때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일 2부/3부/유스(영어청년부)/수요성령예배/새벽예배는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를 계속 제공합니다.
- * 유년부, 유치부는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제공합니다.
- * 영아부, 사랑부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 현장예배 가이드라인

- * 교회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반드시 지정된 자리에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 서로서로 신체 접촉은 피하시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이나 가족 중 아프신 분이 계신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 * 예배가 끝나면 신속한 방역을 위하여 본당 건물 밖으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다음세대예배(유치,유년,Youth)때에는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체온 점검, 이름 기록을 하겠습니다.

1. **2021년 교회 표어는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 수요성령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풍성한 찬양과 말씀이 있는 수요성령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평강"이란 주제로 누가복음 강해를 진행 중입니다. 수요성령예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사무처리회**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사무처리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장소 : 10/24(오늘) 오후 1시, 본당

- * 안건 1)4대 담임목사 청빙 투표
- 2)2022년 임시예산안 승인

* 사무처리회 참석하는 분들에게 빵과 물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본당 입구에서 받으셔서, 본당을 방역하는 동안 주차장이나 개인 차량 안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사무처리회 입장은 **오후 12:45부터** 가능합니다.

4. TFBC HARVEST DRIVE-THRU: 10/30(토) 오후1-3시

캔디 백과 포토존, 그리고 간단한 게임을 제공합니다. 교회 주차장에 오는 순서대로 1가정씩 진행 하겠습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이번 Harvest Drive-Thru 는 TFBC 자녀들에게만 제공됩니다. **10/31(주일) 어린이 예배에 참여한 아이들에게 캔디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캔디 도네이션 안내:** 교회 로비 캔디 도네이션 박스에 캔디를 가져다 주시거나 C-Drive로 현금

수요성령예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Wednesday Prayer and Worship

수요일 저녁 7:00/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인도: 전우일 목사

찬양과기도	찬 양 팀
기 도	채길호 집사
제 목	[누가복음 강해/ 평강 41]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 경 본 문	누가복음 11:5-13
말 씀 선 포	전우일 목사

■ 봉사위원 Volunteer

	이 번 주	다 음 주
기 도 Prayer	1부 정자알프 집사 3부 이종덕 집사 수요 채길호 집사	1부 김연정 집사 3부 이호영 집사 수요 경옥켈리 집사
주차장	안전을 위해서 본당 앞쪽으로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위원 Usher	안내: ① 교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사회적 거리 유지를 항상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① 당분간 예배 중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② 로비에 비치된 헌금함이나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오찬 봉사	COVID-19으로 당분간 주일 오찬은 없습니다.	

새벽 예배 설교

날짜	본문	설교자	날짜	본문	설교자
10/25(월)	욥기 12:13-25	남궁곤 목사	10/26(화)	욥기 13:1-19	전우일 목사
10/27(수)	욥기 13:20-28	정주영 목사	10/28(목)	욥기 14:1-12	안재훈 목사
10/29(금)	욥기 14:13-22	남궁곤 목사	10/30(토)	욥기 15:1-16	정주영 목사

※ 새벽예배는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도 제공됩니다.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라**

□ **본문: 요한복음 17:21-23**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밤에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신 하나됨은 세상에서 말하는 연합과 동맹의 개념이 아니라,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 온전함을 이루라

주님이 말씀하신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사람은 완전할 수 없고 완벽할 수도 없다는 이 전제를 깨달아야 온전함이 시작되어 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함을 이루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신 '온전하다'는 단어의 뜻은 '완벽하다'라는 의미 보다는 '흠이 없다', '정결하다'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즉,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는 상한 데가 없고 흠이 없는 동물 즉, 완벽한 동물이 아니라 온전한 상태의 동물을 드리듯이, 앞으로 제자들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드리지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요1:1]우스 땅에 **옴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대로 옴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 이었습니다. 또한 옴은 언제나 예배에도 최선을 다하며 정결하게 살아왔습니다. 즉, 옴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온전한 자', '흠이 없는 자'의 모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옴의 온전함을 의심하며 무너뜨리기 위하여 고난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주님이 기도하신) 온전함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난으로 옴의 가진 모든 소유와 가족과 옴의 몸을 치게 되면서, 옴의 온전함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에 대한 긴 여정의 이야기가 42장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옴기서를 읽다 보면, 옴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이 기도하시고 계시는 온전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옴이 자기의 능력으로 끝까지 온전함을 지킬 수 있어서, 그 보상의 결과로서 옴이 '의인' 으로서 인정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옴의 온전함을 지켜 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은 이미 옴기 [1장] 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8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옴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옴을 주의 깊게 바라보셨다' 는 이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옴의 중심을 보고 계셨으며 그의 온전함과 정직함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순종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 여호와께서 옴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요42:9]

옴을 주의 깊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거대한 고난의 시간 동안에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옴기서의 결론인 마지막 장에서 옴을 회복시키시면서, '옴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것 보다 더 감사한 회복의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리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로 늘어났다고 해도, 더 잘 살게 되어 졌다고 할 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 인생이라면',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즉, 겉으로 보기에는 정직하고 경건하게 보여지고 온전한 자처럼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의미한 인생 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옴기서를 묵상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우리의 옛사람에 관하여 이렇게 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마치 벼룩의 옷깃에 낀 흰 귀에 묻은 작은 먼지만도 못한 하찮은 존재였음을 기억하라!") - 소망도 없던 인생, 옛날 어른들 말로서 지옥 불의 불쏘시개도로도 못 써 먹을 더러운 죄인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 하셨습니다. 이 불의한 인생을 구원하시고 '온전함을 지켜주시고',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까지(그 고통을 함께 인내하시면 사까지)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마치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탕자를 보자 마자 한 걸음에 급하게 달려가 덥석 안아 주었던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고난의 신비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 지나갔던 크고 작은 그 고난들이 왜, 어떤 이유로 나에게 왔는지? 우리는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길 줄 알았는데, 막상 고난이 찾아오면 한 순간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내 주변에 나의 괴로움을 들어 줄 수 있는 친구도 다 없어집니다. 고난 속에서. 신음하며, 가슴이 저릴 정도의 외로움과 아픔을 곱씹으며, 마치 길가에 버려진 낙엽처럼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다가 없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함만이 남겨집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나 스스로 그 거대한 폭풍과 같은 고난에 맞서서 싸워 온전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 더 확실해 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이 한 마디가 더 깊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옴을 지켜 내셨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도 지켜보고 계셨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또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라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부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의 기준은, '삼위 일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완전하신 예수님과,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완전하신 성령께서 완벽한/완전한 삼위 일체로서 '하나'이십니다.

[예4:4]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하나 됨'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지도 않고 노력한다고 해서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서 한 몸을 이룬 우리가 온전함에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연합하여 완벽하고 온전한 하나됨의 교회를 통하여, 2000여 년 전에 주님이 하신 중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이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와 같이 구원을 받아 온전함에 이르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요17:23)...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하여 먼저 기억해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산 제물로서, 온전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흑사라도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결국 오늘 우리는 옴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며,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단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종의 형체안에 자기를 가두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그 참혹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셔야 했던 참 의인이신 예수님을 바라 보아야 합니다.

옴을 의심하고 시험하였던 사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에게도 또 다시 광야에서 시험하였지만 그러나 주님은 완벽하게 승리하심으로 온전함의 본을 보여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십니다. "내가 너를 이미 기쁘게 받았다"는 그 음성 하나 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 될 줄로 믿습니다. 옴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농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온전함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다시 옴과 같이,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삶,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선포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하나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 묵상 질문]

1. 하나님의 온전함과 우리의 온전함이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2. 나와 교회가 온전하여 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3.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4.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방법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5. 하나님께서 옴을 기쁘게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